속초 보광사에 모신 충혼 358위

9월 12일 영랑호문화제 개최
항일독립운동가 위패 봉안해
보광사 '충효애전당' 현판식
추모행사로 아픈 역사 되새겨

이동격 강원지사장


9월 12일 속초 보광사에서 열린 제10회 영랑호문화제에서 제전위원장 석문 스님이 항일독립운동가 선열의 위패를 충효애전당에 봉안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가 358위의 위패가 속초 보광사에 봉안됐다.

속초 보광사(회주 석문 스님)는 9월 12일 제10회 영랑호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가 358위 위패 봉안 추모행사와 함께 보광사 지장전 '충효애전당(忠孝愛殿堂)' 현판식이 봉행됐다.

행사에는 제전위원장 석문 스님을 비롯해 이병선 속초시장, 독립운동가 후손 노재창·이한솔 씨, 지역 주민과 시민 등이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에 봉안된 항일독립운동가는 속초·양양 출신 146위, 인제 118위, 고성 94위 등 모두 358위다. 설악권 곳곳에서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선열들의 위패를 한자리에 모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전위원장 석문 스님은 "358위 항일독립운동가를 한 분 한 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사 위에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중요한 일"이라며 "영랑호문화제를 통해 오래 기억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속초·양양과 인제, 고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설악권 지역으로, 오랜 세월 생활과 문화의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이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선열들의 위패를 한자리에 모심으로써 각 지역의 개별적인 역사를 넘어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됐다.

358위의 위패는 보광사 지장전 충효애전당 우측 영단에 봉안됐다. 참석자들은 봉안된 위패 앞에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되새겼다.

또한 충효애전당에는 박석신 화백이 358위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꽃으로 형상화한 추모작품 특별기획전도 마련됐다. 선열들의 이름을 예술작품으로 되살려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참석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이한솔 씨는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석문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슴으로는 일본을 용서하되 머리로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며 "그리고 한뜻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패 봉안을 계기로 보광사는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 후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추모사업, 청소년 역사교육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론종 종정 해공 대종사 부도탑 제막

9월 14일, 충주 대산정사서 49재
3세 종정 해공 스님 부도탑 제막
혜승 스님 "본심 고향으로 돌아가"


대한불교삼론종은 9월 14일 충주 대산정사에서 해공 대종사 49재를 봉행하고 부도탑을 제막했다.

평생 수행과 전법, 중생 교화에 힘쓴 해공 대종사의 49재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9월 14일 충주 대산정사에서 3세 종정 해공 대종사 49재를 봉행했다.

49재에는 종정 혜승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남륜 스님, 전 총무원장 해불 스님, 승정원장 진봉 스님, 대산문도 대표 지운 스님, 서천 천용사 회주 지경 스님과 주지 성혜 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혜승 스님은 추모법어에서 "한 번 본래 청정한 본심을 어김으로써 지옥과 아귀와 축생의 삼도를 드나들며 생로병사를 거듭하게 된다"며 "본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무원장 해불 스님은 추모행장을 통해 "대종사께서 걸어오신 길은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길이었다"며 "문도들은 큰스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수행자의 정신과 전법의 원력을 깊이 새기고 그 뜻을 받들어 불법을 더욱 널리 펼치고 대중을 이롭게 하는 길에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49재에 이어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제막식은 해공 스님의 수행과 덕행을 기리고 원력을 되새기는 자리로 회향됐다.

해공 스님은 1943년 9월 1일 태어나 1961년 4월 1일 법륜사에서 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수행과 교학에 뜻을 두고 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한평생을 바쳤다. 1989년 대산 혜봉 대종사가 대한불교삼론종을 창종할 당시 뜻을 함께하며 종단의 기틀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탰다. 이후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아 삼론종의 정착과 발전에 힘썼으며 총무원장을 거쳐 2001년 10월 14일 부종정에 임명됐다.

2007년 2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제3세 종정에 취임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 불법홍포와 중생교화에 힘썼다. 지난 7월 28일 세수 84세, 법납 66년으로 원적에 들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윤후 승장, 불교·지역 함께 선양

9월 12일, 2026 처인승첩 기념
김윤후 승장 추모 다례재 봉행



몽골 침략에 맞서 스님과 지역민이 힘을 모아 승리를 일궈낸 처인성의 역사가 올해 더욱 큰 울림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35년간 이어온 처인성문화제가 올해부터 불교계와 용인시, 용인문화원, 처인성기념사업회가 함께하는 통합 행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

제35회 처인성문화제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용인 처인성 일원에서 개최됐다. 9월 12일 열린 기념식과 추모다례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언주 국회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현태주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장, 우현욱 경기도의원 등 지역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그동안 별도로 진행된 처인성 관련 행사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에는 용인문화원을 중심으로 처인성문화제가 진행됐으며, 처인성기념사업회는 별도 기념축제를 해왔고, 불교계는 김윤후 승장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각각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각 행사의 의미를 살리면서, 행정·문화계·기념사업회·불교계가 함께 처인성과 김윤후 승장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자산을 알리는 데 뜻을 모았다.

불교계를 대표해 기념사를 전한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은 "처인성이 단순한 옛 성터에 머물지 않고 역사문화의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비와 복원 등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축사를 통해 "처인성 전투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윤후 승장은 용인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그 역사를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이어가야 한다" 며 "김윤후 승장과 처인성의 역사를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환지본처 '서고사 나한' 한자리에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개막
환수 나한상 등 126점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과 전주 서고사(주지 진선 스님)는 9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도량으로의 귀환, 전주 서고사 나한'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지원으로 도난 성보의 귀환을 기념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서고사 목조나한좌상을 비롯한 성보문화유산 총 44건 126점이 선보인다.

서고사 나한상은 1695년 조각승 성심 스님 등이 조성한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걸작이다. 지난 2004년 16구 가운데 8구가 도난당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환수됐다. 이번 전시는 흩어졌던 16구의 나한상이 22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뜻깊다.

전시에 앞서 9월 15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서고사 주지 진선 스님은 "도난의 아픔을 딛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툰 나한님들의 미소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평화와 치유의 울림을 전해준다"며 "환수의 원력을 모아주신 사부대중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사고사찰 황방산 서고사'에서는 후백제 견훤의 명으로 명덕 화상이 창건한 서고사의 유구한 역사와 위상을 살피며 2부 '관상, 나한을 그리며 바라보다'에서는 도난과 환수의 여정을 거쳐 모인 16구 나한상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3부 '발원과 염원을 담다'에서는 나한상 복장물과 조상경, 최첨단 과학조사를 통해 밝혀낸 제작 기법과 안료 성분을 소개한다.

전시와 연계한 학술대회는 10월 15일 오후 1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후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급"

마곡사 동림회, 1차 학술포럼



조계종 제6교구(교구장 원경 스님) 스님들로 구성된 마곡사 동림회(회장 성관 스님)가 고령화 시대 승려 노후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동림회는 9월 12일 공주시노인복지회관에서 '승려 노후복지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스님들의 소득과 의료·돌봄, 주거 등 노후생활 전반의 현실을 살피고 종단과 교구의 역할, 국가복지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마곡사는 주차장 수입의 상당 부분을 승려 복지기금으로 출연해 학인, 수좌, 생활이 어려운 스님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곡사 동림회장 성관 스님은 "이번 포럼은 승려 노후복지의 실태를 진단하고 정부 복지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가 형식적인 데 그치지 않고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80돌 광동학원, 새 100년 도약 다짐

9월 10일 80주년 기념식 개최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인묵 스님)이 건학 80년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설립자 운허 스님의 교육 원력을 이어 새 100년을 열겠다고 발원했다.

광동학원은 9월 10일 남양주 광동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광동 건학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동 80년의 기록과 운허 스님의 교육 정신이 담긴 〈광동 80년사〉를 부처님께 봉정하며 계승이 온전히 이어지기를 서원했다.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은 "80년이라는 세월은 한 학교의 역사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며 "〈광동 80년사〉가 지난 역사를 정리한 기록을 넘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광동이 어떤 학교가 돼야 할 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87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 광동학원 이사장을 지낸 일면 스님에게 공로패를, 〈광동 80년사〉 편찬을 이끈 신용철 광동학원 이사와 부정흠 광동고등학교 교장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뮤지컬로 되살린 사명 대사 호국정신

대둔사, 호국불교 창작음악회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 스님)는 9월 1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구미 대둔사 산사음악회 호국불교 창작음악회-사명 대사 하이라이트 쇼'를 개최했다.

행사는 삼귀의를 시작으로 후원금 전달, 사명 대사 하이라이트 쇼, 소원풍등 띄우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명 대사 하이라이트 쇼'는 뮤지컬 극단 야성이 제작한 창작뮤지컬 '사명 대사'의 주요 장면으로 구성한 공연이다. 지난해 뮤지컬 갈라쇼보다 출연 배우와 공연 장면을 확대해 한층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주지 서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둔사에서 사명 대사가 의승군을 훈련시키고 아픈 병자들을 돌보았다는 기록이 있다"며 "그 뜻을 기리고자 뮤지컬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연에 앞서 서원 스님은 구미불교어린이댄스팀 파드미댄스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뮤지컬 공연이 끝난 뒤에는 '대둔사 소원풍등축제'가 이어졌다. 대둔사 경내에는 형형색색의 300여 풍등이 밝혀지며 천년고찰의 가을밤을 장엄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불갑사, 꽃무릇 속 '동행웨딩'

9월 20일, 상사화축제서 취약 계층에 무료 결혼식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는 9월 20일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기간에 맞춰 경내 꽃무릇 군락지와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 '동행웨딩'과 사찰음식 전시·시식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11시 꽃무릇 군락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동행웨딩'은 불갑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뜻을 모아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결혼식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식에는 황혼 리마인드 웨딩을 희망하는 어르신을 비롯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커플 등이 참여하며 의상과 메이크업, 예식 진행 등 결혼식 전반이 무료로 지원된다.

주례는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이 맡는다. 웨딩 전문업체 잉컨설팅(대표 오경진)이 예식을 진행한다. 이날 불갑사에 새롭게 들어선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는 사찰음식의 가치와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주지 덕상 스님은 "이번 행사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